

K팝 일본 진출 20년 '한류 꽃' 활짝

아이브·에스파 등 TV·공연 활약
팬층 10대까지 확대
안정적인 K팝 최대 해외 시장
관계 개선·비자 완화 등도 시너지

한류 열풍이 시작된 지 20년을 맞은 일본에서 K팝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이브와 르세라핌 등 4세대 K팝 걸그룹이 인기 바통을 넘겨받으며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 신흥 K팝 시장의 부상에도 '안정적인' K팝 최대 해외 판로로 꼽힌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으로 TV 출연 등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고, 신인 대상 비자 발급도 완화되면서 미래 전망도 밝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아·동방신기에서 아이브·에스파·뉴진스 등 4세대 '우목'

지금 일본에선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등을 일컫는 이른바 '4세대 K팝 걸그룹'의 활약이 눈부시다.

아이브와 르세라핌은 지난해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가수들만 출연한다는 NHK 연말 음악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출연했다.

에스파는 이달 데뷔 2년 9개월 만에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도쿄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이틀간 9만 관객을 모았다. 이는 일본 출신이 아닌 해외 가수로서는 데뷔 이후 가장 빨리 도쿄돔에 입성한 기록이다.

또 뉴진스는 일본 대규모 음악 축제 '서머소닉 2023'의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 3만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3년 KBS 드라마 '겨울연가'로 일본에 한류 열풍이 촉발된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한류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아시아의 별' 보아가 2002년 정규 1집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로 일본 오리콘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지 21년이 된 해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동방신기는 물론 소녀시대·카라에 이어 방탄소년단(BTS)·세븐틴에 이르기까지 K팝 스타들은 꾸준히 일본 열도에서 사랑받았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경쟁한 현지 가수를 모두 제치고 2021~2022년 2년 연속 가수 매출(오리콘 아티스트 세일즈) 1위에 오르는 진기록을 썼다.

2020년 이후에는 아이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등 4세대 아이돌 그룹이 인기 대열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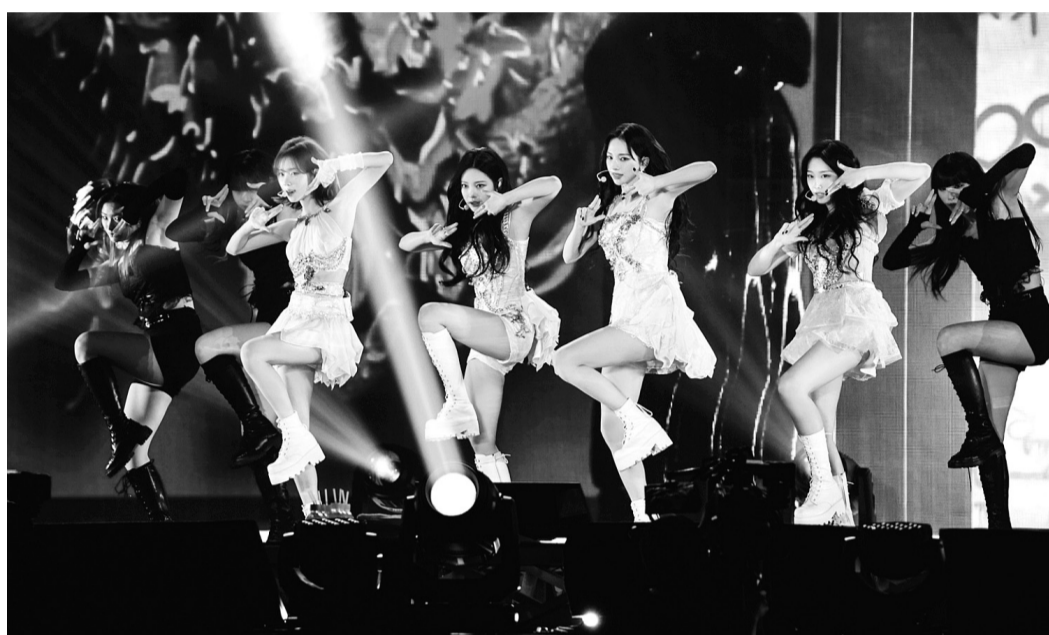
◇일본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K팝 시장... 음반 수출액 부동 1위

방탄소년단의 성공 이후 미국과 유럽 시장이 K팝에 활짝 열렸지만, 일본은 여전히 국내 가요 기획사들이 중요시하는 해외 시장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일(對日) 음반 수출액은 6363만3000달러(약 843억원)로, 미국(3094만6000달러·약 410억원)



방탄소년단



에스파

과 중국(2276만5천달러·약 302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K팝 음반 수출 대상국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가요계에선 '세계 2위' 일본 음악 시장이 지닌 '안정성'에 주목한다. 한 번 팬이 되면 꾸준히 사랑을 주는 공고한 팬덤이 존재하고, 이를 막강한 공연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대 중국 시장이 부상하면서 너도나도 현지에 진출했다가, 사드 사태 이후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순식간에 문화 교류가 끊긴 사건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성장하는 일본 K팝 시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방탄소년단도 미국 진출에 앞서 데뷔 이듬해인 2014년 싱글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으로 일본에 첫발을 디뎠고, 트와이스도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지난 2021년 첫 영어 싱글 '더 필즈'(The Feels)를 발표했다.

◇한류 팬덤 중교생까지 폭넓어져...비자 완화 등 호재

한류 열풍 20년을 맞이한 일본에서 앞으로의 20년 전망도 밝다. 대형·중소 기획사를 막론하고

신인들이 계속 일본 시장을 노크하는 데다가, 한류 팬덤이 '겨울연가'를 접한 중장년층부터 르세라핌·뉴진스에 빠진 중교생까지 세대가 폭넓어진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일본 정부의 외국 신인 가수에 대한 공연 비자(홍행 비자) 완화 조치도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이달부터 일본에서 하루 보수가 50만엔(약 448만원) 이상인 외국인 공연자에 대한 체제 일수는 종전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 보다 긴 기간 투어가 가능해졌다. 입석(스탠딩) 공연과 음식물 유상 판매도 허용해 술을 파는 라이브하우스 공연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소규모 공연은 출연 외국인의 공연 비자 발급 시 2년 이상 활동 경험 등의 요건이 부과됐지만 주최측 압력이 3년 이상이고 임금 체불 사실이 없으면 가수의 경력은 별도로 묻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특히 소규모 기획사 신인 가수가 일본 진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살인마 무기수로 선 굵은 연기 희열"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 걸' 고현정

딸 구하려 교도소 탈출...모성에 그려
'3인 1역' 다른 두 배우 호연에 놀라

"'마스크걸' 대본을 읽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어요. 항상 비슷한 역할만 해왔는데 이런 작품이 들어오니, 이번 무조건 해야겠다 결심했죠."

배우 고현정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마스크걸'에서 살인죄로 10년 넘게 수감된 이후의 김모미 역할을 맡았다.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하려 교도소에서 탈출하고, 중국에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처절한 모습을 연기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고현정은 인터뷰 내내 선이 굵은 연기에 도전한 데서 느끼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가 대본을 받자마자 오래 고민하지 않고 출연을 결심했다는 것은 이미 김용훈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알려진 이야기다.

고현정은 특히 '마스크걸'에서 고된 수감생활에 익숙하고 초췌해진 김모미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현정의 짧은 머리는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는 "얼굴을 어떻게 분장하고 기미도 만들어서 더, 더 안 좋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감독님 요청에 따라 머리카락도 잘랐다"며 "처음엔 단발 정도로 잘랐는데 제가 보기에도 별 차이가 없어서 다시 훨씬 짧게 자르고 갔더니 감독님이 그 모습에 아주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걸'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수의 꿈을 포기한 직장인 김모미가 밤에는 가면을 쓴 채 마스크걸로 변신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주인공 김모미 역할은 고현정과 나나, 이한별 세 명의 배우가 연기했다. 직장인 시절의 김모미는 이한별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성형수술을 거친 김모미는 나나, 자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0년이 지난 뒤의 김모미



는 고현정이 연기했다.

고현정은 "저는 대부분 혼자서 이야기를 이끄는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한 사람 역할을 세 사람이 맡는다는 건 서로 협력이 필요한 일이었다"며 "그런 협력이 제가 원하던 거였고, 그래서 꼭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모미를 연기한 세 명의 배우는 제작진의 방한에 따라 서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인물이지만, 거의 서로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게끔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고현정은 자신의 촬영을 마친 뒤에야 이한별과 나나의 연기를 결과물로 확인했다.

'마스크걸'은 배우들의 파격적인 변신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받았지만, 김모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거의 모성을 내비치지 않던 김모미가 후반부에 딸 김미모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다시피 하는 모습이 갑작스럽다는 지적이다.

고현정은 이에 대해 "김모미가 그만큼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에게 '마스크걸'이 어떻게 기억될지 묻자 고현정은 "'마스크걸'은 해방감을 느끼게 해준 드라마"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무살' 뽀로로 8번째 시즌 오늘 첫방송

EBS는 유아용 3D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8을 28일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성기에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뽀롱뽀롱'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뽀롱뽀롱 뽀로로'는 시즌1이 2003년 처음 방송돼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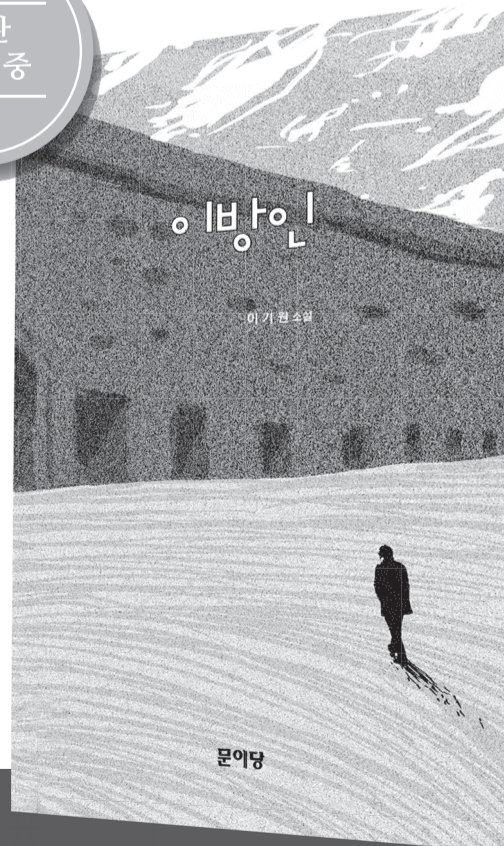
시즌 8은 신비로운 일로 가득한 이상한 나라, 마법 생물로 가득해진 마법의 숲, 바닷속, 소라게 왕국 등 새롭고 다양한 장소에서 활약하는 뽀로로와 친구들의 모습을 그린다. 거대 아귀, 거대 가오리 등 각종 해양생물과 영동한 매력 가진 몬스터 등 조연 캐릭터들도 등장한다.

또한 뽀로로와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심어주도록 연출했다.



시즌8은 매주 월·화요일 오전 8시 35분 EBS 1 TV서 방송된다. /연합뉴스

절판 판매중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